

건강 칼럼

소화 장애로 알아보는 장기기능 이상

일 상에서 식후 불편감을 느끼는 소화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여러 이상들을 의심해볼 수 있다.



최영득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 원장

▲다양한 원인에 의한 소화불량 소화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영양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내에서 분해돼 혈액 내로 흡수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군의 경우 정상적인 식사 후에 발생하는 식후 불편감이나 조기 포만감으로 정상적인 양의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적어도 일주일에 수차례 정도 있으면서 이 증상을 설명할 만한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 진단할 수 있다.

권장한다. 40세 이상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국가 암 검진을 빼뜨리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는 소화 장애, 위장질환 위-식도역류질환, 위염,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등 소화성궤양, 식도암이나 위암 등 악성종양, 담낭성 위마비 등의 다양한 위장관질환이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살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능성소화불량 기능성소화불량은 일반 인구의 약 15%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흔하며 식후불편감증후군과 심와부동통증후군으로 분류된다.

독자제언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서구적인 생활습관의 확대에 연간 급성심장사 발생 건수는 연간 2만~2만5000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식여부를 살펴보고,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음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으로 반복해 실시한다.

독자제언

휴가철 아이 안전, 지문 사전등록이 답이다

아이들은 어디로 필지 모르는 러비공 같다.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잠깐이라도 한 눈을 파는 사이 아이는 사라지고 없고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것이다.

동의를 저문을 조회해 유사지문이 확인·특정되면 부모에게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지문등록이 필수적인데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지문과 사진, 부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사설

전북, 제육 찾기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민들이 제육 찾기를 열망했는데 실망이다. 전북도가 제육 찾기기를 먼저 말했고 도내 모든 언론사들도 그에 호응해 제육 찾기기를 기대했는데 말이다.

있다. 우리 전북이 최근 들어서 광주와 전남에 공공기관이 통합되고 예측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이 이쪽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권이 크다고 해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다.

전주시장의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김 시장은 전주시의 미래와 관련해 많은 것을 말했다. 그것은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의 미래와 관련해 말한 것과 비교가 된다.

김 시장이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의 자리가 말한 것들은 그 중요성에서 그 중량이 대단하다. 본 사실의 의도에서 잠시 비껴가자면 이번에 허가지구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말한 것과 비교의 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newspaper, featuring an illustration of a traditional Korean ship on a stylized sea. The text includes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nd a call to action for subscriptions: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